

# 1921년 조선생명 광주지부 '계·향약' 명맥 있다

## 김경수의 광주땅 '최초' 이야기

<90>보험회사

2021년 말 기준 광주지역 보험업체와 종사자 수는 279곳 7천352명(여 5천152명)이다. 생명보험 130곳(종사자 3천55명)을 비롯해 손해보험 119곳(종사자 3천35명), 보증보험 21곳(종사자 257명), 건강보험 5곳(종사자 53명), 산업재해·기타사회보장보험 4곳(종사자 22명)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167곳(종사자 5천453명), 동구 66곳(종사자 1천136명), 북구 37곳(종사자 600명), 광산구 8곳(종사자 158명), 남구 1곳(종사자 6명) 순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은 계(契)와 향약(鄉約)에 들어있다. 광주는 15세기 초 칠석동 부용정, 향약 시행 기록이 1792년 발행한 광산지(光山誌)에 전한다. 수암지(秀巖誌)에서는 1451(文宗元)년 광주향약조목을 볼 수 있다.

광주 최초 근대 보험회사 흔적은 지상보도를 통해서다. 1921년 11월 조선생명주식회사 광주지부장에 윤성희씨가 맡는다. 1932년 전화번호 부에는 일본생명보험주식회사 광주출장소가 광산정에 있다고 기록됐다.

1922년 조선생명 자매회사인 조선화재보험회사를 비롯해 1927년 광주지사, 1935년 화재보험

(금남로274-9), 고려(금남로274-3728), 안국화재(금남로3712), 제일(금남로4781-2), 신동아(충장로4713-8), 동방(광산동60·금남로4783), 한국무역(호남동5), 한국(학동99-6), 범한(남동169-1), 해동(금남로3712-3)이 있다.

1970년대 광주상공회의소 자료에 수록된 보험사(설립연대·지부/종업원수)를 열거한다. 생명보험으로 흥국(1938·금남로57143-5/5), 동방(1959·금남로47124/25), 제일(1963·금남로57191/6), 대한(1969·금남로2716-1/30), 동해(1974·대인동190-6/5)가 있다.

화재해상보험은 동양(1927·금남로57137/30), 대한(1946·공동55-2/3), 고려(1947·금남로27124/33), 해동(1951·금남로3712-3/10), 안국(1956·금남로47121/5), 제일(1957·금남로4781-2/20), 동방(1964·금남로47124/9), 국제(1971·금남로57162/2), 범한(1972·충장로3716/3)이 있다. 대한교육보험(1959·금남로171/7), 대한보증보험(1971·황금동69/8), 한국자동차보험(1962·대인동190/30)과 대리점(운암동140)이 있다.

1979년 금남로571 183-1번지에 8층 흥국생명이 선다. 1986년 누문동 111-127번지 일대 대지면



1980년대 금남로571 광주생명보험(사진으로는 광주100년, 1989).

### 일제강점기 조선화재보험·일본생명보험 등 잇따라 1979년 금남로 흥국생명·1986년 누문동 교보생명 광주생명보험 1988년 첫선...금호·KDB생명으로

광주협회가 각각 설립된다. 광주평문서에는 1941년 불로동 99번지가 경성 태평로1가 19번지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터로 112번지와 함께 수록됐다. 1958년 동양화재로 추측된다.

1956년 전남병감(지점장)에는 충장로3가 고려화재해상(박한수), 4가 신동아손해(최동문), 3가 안보화재해상(곽상욱), 2가 제일화재해상(김두식), 대의동 대한화재해상(김준식), 광산동 한국화재해상(조권수)·동양화재해상(박찬궁), 황금동 해동화재해상, 국제화재해상 주재원(김학준)이 게재돼 있다.

1960년대 문헌에는 생명보험은 대한(충장로3가12·금남로2718), 고려(충장로4725·황금동69-2), 동방(남동168·충장로57178), 제일(남동8-1), 흥국(금남로27128)이 있다. 교육·자동차보험은 대한(대인동31·충장로3715)·한국자동차보험공사(금남로3719)가 적혀있다.

화재해상보험은 동양(금남로1719-2), 대한

적 4천53㎡, 건축면적 1천112㎡, 연면적 1만3천372㎡ 철근콘크리트 지하 3층·지상 11층 교보생명 건물이 선다. 2013년 리모델링을 하고, 11층에 하정원을 꾸민다.

계단 옆에 들어선 1층 로비에 2013년 17회 광주시 건축상 수상관이 보인다. 설계자와 시공자는 정립건축종합건축사(김진구)와 대립산업(김운)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최우수상과 2013-2018년 녹색건축인증 우수판도 함께 게시돼 있다.

대표 지면 115번지와 116번지는 1962년 금광기업 소유였다. 실제 건물이 위치한 118번지는 1922년 임곡면 광산리 500번지에 주소를 둔 기근섭 땅이 됐다. 1948-1974년 기세훈 소유지다. 지하철 금남로571역과 광주일고와 통하는 요충지로 지하에 교보문고 안도 추진됐다.

영양덕진 송안마을 출신 신용호(慎鍾浩·1917-2003)와 신창재는 세계보험협회(IIS) 보험대상

을 1996-2023년 세계최초로 부자간 받는다. 2019년 '참사람을 꿈꾸며' 펴낸다. 현재 호남제주권 내근사원 200여명, 설계사(FP) 1천500여명 중 광주에 내근 58명과 FP 301명이 일하고 있다.

1980년대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향토생명이 옮긴다. 1988년 5월 16일 광주생명보험주식회사(최병수)로 등장한다. 자본금 60억원으로 금남로5가 113번지 한일은행 광주지점 일부를 빌려 6월 개점한다. 1993년 아주생명으로 개명하고, 1996년 금호그룹에 속해 금호생명이 된다.

이듬해 양동 60-37번지 양동시장앞전머리 광주전면에 대지면적 7천543㎡, 건축면적 2천37㎡, 연면적 8만3천498㎡ 크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 6층·지상 30층, 높이 128.76m 건물을 짓는다. 당시 광주 최고층 빌딩이다. 설계·공사감리자 한울국제건축사(최병천), 시공자 금호건설이다.

2000년 5월 여자프로농구단(엘컨스)를 창단하고, 동아생명을 품는다. 2010년 6월 산은금융지주로 인수돼 KDB생명으로 사명을 바꾼다. 2012년 생명보험협회 최초, 인터넷보험 사업을 개시한다. 7층에 생명보험협회 광주지부와 월 9회 FP자격시험장이 있다.

2000년 '생명보험협회 50년사'가 나온다. 1921년 10월 13일(舊)조선생명보험(주) 설립자 한상룡, 1946년 9월 9일 대한생명 창립, 1950년 5월 25일 조선생명을 한국생명으로 상호변경, 1958년 7월 11일 태양생명을 대한교육보험으로 변경, 1967

년 동방생명 10년사 발간이 된다.

1988년 금남로571 55-1번지에 대지 2천540㎡에 건축·연면적 872-1만4천957㎡ 지하 3층·지상 14층 높이 56m 동방생명 건물이 세워진다. 1989년부터는 삼성생명이든. 8층에서 만난 관계자는 1990년대 중반이 성황기였다.

1993년 대한생명은 대인동 185-1번지 대인수퍼마켓에 대지·건축·연면적 1천985-845-1만7천382㎡ 지하 5층·지상 12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 완공된다. 설계자는 천일건축(한규봉)이며, 시공자는 신동아건설이다. 2002년 한화그룹으로 편입, 2012년 이후 한화생명이든.

상무지구 차평동 1247-5번지에 삼성화재빌딩이 위치한다. 2008년 대지·건축·연면적 3천266-1천720-3만1천500㎡ 규모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4층·지상 18층, 높이 88m 건물 6층에 손해보험협회와 FP자격시험장이 있다. 금남로571 32-9번지 DB손해보험8층 건물은 1978년 생이든.

2006년 발행한 '손해보험협회60년사'를 본다. 1957년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1988년 11월 21일 보험의 날이 정하고, 다음해 '보험의 노래(박대진詞·박은희曲)'를 부른다. 우리나라 첫 손해보험사인 조선화재가 1950년 동양, 2005년 merit로 칭한다. 2013년 차평동 1243번지에 선 스카이라인타워 6-11층에 메리츠가 들어있다. 전봉덕 목한당상(惠韓相)을 쓴다.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문학박사



누문동 교보생명(향토지리연구소, 2023).



대인동 한화생명(향토지리연구소, 2023).



차평동 메리츠화재 내부(향토지리연구소, 2023).

광주매일신문 '학교폭력예방문화조성' 연중 캠페인

## "장난도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새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발전방안협의회'를 가동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여건들을 제시하며 올바른 방향을 선도해 온 광주매일신문은 '장난도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을 적극 전개합니다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